



한울타리

어머니 주일

우 리 교회는 지
난 30여년 동
안, 5월 둘째 주일이면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
머니주일 찬양제’ 를 열
어왔습니다.

그동안은 경연대회
로 이어져왔는데 3년전
부터는 구역, 교구간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자
(?) 화기에애한 분위
기의 예술제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년 주일학교에서부터 교회내 각기관,구역에 이르기까지 10개 팀이
참가하여, 자리하신 어머니들에게 아름다운 찬양과 울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선
사하였습니다.

예술제 후에는 집사회(회장 이정규집사) 남자 집사님들이 새벽부터 준비한 점
심을 나누며 어머니들은 오랫동안 부엌 일손을 놓고 편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30년을 이어온 변화경 장로님(찬양대)의 예리하고 재치있는 심사평은
한팀, 한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포복절도할 유우머를 섞어 친교실을 웃
음바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3세대가 함께 하는 화목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귀한
어머니주일 예술제를 허락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견신 세례식



기쁨과 환성, 흥
분, 황홀, 도취감
!!! 이러한 기쁨과 감성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품으로 우리의 5 형
제, 자매가 결핍했던 행
사를 목격하고 축하를 했
던 세례/견신 축하의 밤
의 분위기였습니다. 하
지만 이러한 단순한 언어
나 감성으로는, 그날밤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
님의 광대하신 은혜를 전

5 월호 차례

- **담임 목사 메세지**
“들으라”
- **전교인 계육 대회**
- **사회 정의 위원회**
“나그네를 기억하라”
- **니카라과 선교 바자**
- **성경과 문학**
- **청년 2부 수양회 보고**
- **권사의 보고**
- **성금요일 음악 예배**
- **쉐마의 밤**
- **부부 청년부 수양회**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청년 1부 열린 축제**
- **당회 소식 / 6월 행사**
- **English Night**
- **니카라과 선교기금
골프 대회**
- **새교우 환영 소식
및 알림**

체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격려하며, 그들의 생을 예수께 맡기고 바치는 결단 앞에, 성령과 그의 앞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됨으로 함께 했고, 찬양과 경배, 음식을 함께 나누며 3세대가 함께 했던 기쁨의 축제일이었습니다.

우리주 예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체험하는것은 무한한 기쁨입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의 잃었던 양을 찾았노라 (눅 15:6).”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 메세지 ‘들으라’

이영길 담임목사

2년 전 우리 교회에서는 제2의 희년을 향한 비전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제 1조항이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입니다. 이에 작년 여름 수양회에서는 같은 주제로 뜻깊은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온 교우님들이 ‘쉐마’ (들으라)의 중요성을 배우고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종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의 간청을 듣고는 했었습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3세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던 차에 5월부터 매주 토요일 밤 쉼의 밤을 갖기로 했습니다. 3세대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참으로 3세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펠리칸(Pelican)이라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통은 죽은 자(선배)들의 살아 있는 신앙입니다. 전통주의는 산자들의 죽은 믿음입니다” (Tradition is the living faith of the dead,

traditionalism is the dead faith of the living). 그는 음악가의 비유를 들어 전통을 설명합니다. “음악의 창조는 전통이 끊어진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전통이라는 강의 한 부분일뿐입니다.”

전통없이 새로운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통없이 참 배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쉼의 밤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또한 뉴빙겐(Newbingen)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현명하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이 자녀나 학생들을 통해 완성됨을 알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임을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 부모님의 교육은 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쉼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집사외 박진욱 집사



작년에 이어 두번째 맞이하는 전교인 체육대회에 많은 교인들이 오셔서 친교하며 한 가족이 됨을 느꼈다. 비록 비가 와서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해 진행자로서 아쉬움이 많았지만, 어린이들부터 상록회원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식사하고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며 그 아쉬움을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빗속에서 강행한(?) 여성들의 발야구에서는 작년 못지않은 장면들이 속출했다. 뛰는 주자인지 수비하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한 분도 계셨고, 작년의 홈런 타자들이 부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강한 승부욕에 큰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 비록 우리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금년에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또 다른 모습을 내년에 기대하며 참석한 교우님들께 감사드린다.

“나그네를 기억하라”

사회정의위원회의 이선영 장로

요즘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민법 개정안을 놓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4월 10일 워싱턴 광장에 50만의 인파가 함께 모여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미국 내에 1200 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의 숫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그들의 외침은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 저임금, 부당한 작업 조건, 생계를 위해 장시간의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채 은둔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새 법안은 세금을 내며 열심히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해야 하며, 강제 추방, 감금, 벌금, 신분 노출로 인한 부당한 대우와 함께 이들을 돕고 있는 자들까지 범죄화할 가능성이 높아 종교 단체나 일반 시민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방인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또한 잠시 살다 돌아가는 여행자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의 시각을 넓히며, 사랑과 화평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시 한번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없는 울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대하여야 합니다.

부당함 가운데 고통에 있는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교회가 속한 PCUSA 교단에서는 이러한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PCUSA 산하에 사회 정의 사역의 한 기관으로 있는 워싱턴 사무실은 현재 이민자들의 인권 향상과 정의를 위한 자료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간과할 수 없는 오늘날의 중요한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교우님들은 웹사이트(www.pcusa.org)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 인권 문제, 경제 정의, 환경, 세계 평화에 관한 정책 결정 등의 기회가 있을 때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 위원회에서는 먼저 우리가 간과하고 있

는 사회 정의의 문제들에 관한 인식을 돕고, 행동하는 신앙으로서 성찰하며, 사회 정의에 참여의 방법들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은 Interfaith Worker Justice 기관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신앙 고백을 발표한 것인데, 그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 기도를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나그네를 기억하라 (Remember Immigrant)

인도자: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은 외국인, 나그네, 요즘 언어로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한 관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회 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면 이방인들을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이방인들을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땅에서 이방인들이었느니라(신명기 10:17-19)

인도자: 우리는 눈을 들어 이민자들의 고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회 중: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던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들은 가난하므로 그 품삷을 간절히 바람으로 지체하지 말고 주라(신명기 24:14-15)

중략....

인도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잘 보호하지 못하였고 사회 보장 제도에서도 제외시켰으며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민자의 자녀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회 중: 하나님은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민수기 15:15)

인도자: 나그네가 우리 땅에 살고 있을 때

회 중: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외국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레위기 19:33-34)

인도자: 나그네 노동자를 고용한 자들에 하나님의 규례를 촉구합니다.

회 중: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출애굽기 23:9)

중략...

인도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를 도우소서.

회 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의와 긍휼(compassion)로 나그네된 자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 이 신앙고백서의 전문을 원하시는 분은 이선영장로(nurselee@comcast.net)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니카라과 선교 바자

여선교의 외장 태영미

지난 4월 23일에는 니카라과 선교를 위한 바자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선교회에서 해오던 큰 행사였고 모두들 잘 해내셨기에 올해도 잘 해야한다는 조금의 부담도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으로 임원회의를 하는중 어떤 분께서 뉴저지의 큰 마켓에서 음식을 싸게 사와서 팔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해마다 직접 김치, 깍뚜기 그리고 빈대떡, 김밥등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는 했었는데 이런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사실 윗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모두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더욱 쉽게 결정하고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막상 일을 진행해보니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선 물건을 배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전화로 물건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자를 2주일 남긴 금요일 새벽 임원3명이 직접 뉴저지로 갔습니다. 미리 연락이 되어있던 그 쪽의 관계자 분과 만나서 김치, 순대, 젓갈, 짜아찌등으로 결정을 지었지만 생각보다 싸지 않은 값에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우리가 직접

사오기로 했습니다.

성 금요일 예배가 있던 날, 새벽에 보스턴을 떠난 뉴저지 시장보기 일행은 시장보기를 얼른 마치고 점심만 먹고 바로 출발 했지만 - 일행중 한분이 찬양대의 저녁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 생각보다 차가 많이 밀려 도착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고 오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막상 하루 전날에는 쌓여있는 음식에 우리가 만든 김밥, 빈대떡에 이 많은 음식이 다 팔릴까 하고 한 걱정 했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그 많은 음식이 다 팔렸고 도내이션들도 많이 해주셔서 \$5000.00 이란 큰 이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아멘

이 지면을 통해 에스더와 마리아 여선교회, 그리고 부역에서 음식 만드느라 애쓰신 분들, 특히 바자를 맡아서 진행해주시고 물건도 운반해주신 진정원, 안성환, 박애리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폭풍의 언덕 (2)

박진음 집사

폭풍의 언덕의 원제는 <Wuthering Heights>입니다. Wuthering Heights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히스클리프가 사는 집의 이름입니다. 소설의 앞 부분에 보면 wuthering은 a significant provincial adjective, descriptive of the atmospheric tumult to which its station is exposed in stormy weather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 한국말 제목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폭풍의 언덕>보다 더 적절한 한국말 제목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Mr. Earnshaw가 고아인 히스클리프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친 아들처럼 키웁니다. 히스클리프는 Earnshaw의 아들인 힌들리에게는 미움을 사지만 딸인 캐서린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Wuthering Heights 근처에 있는 Thrushcross Grange라는 저택에 사는 에드가와 가까워지고 캐서린과 결혼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히스클리프는 집을 떠납니다. 3년 후에 다시 돌아온 히스클리프는 에드가의 여동생인 이사벨라와 결혼을 하며 자신의 과거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시작합니다. 히스클리프의 아들인 린튼과 캐서린의 딸 캐서린이 (엄마와 딸이 이름이 같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히스클리프는 Wuthering Heights와 Thrushcross Grange의 주인이 됩니다. 자신을 멀리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소유하게 되지만 히스클리프는 늘 캐서린을 잊지 못하고 괴로와하면서 죽은 후에라도 그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함께 거니는 것을 보았다고 어떤 목동 아이가 얘기하는 것이 소설의 끝 부분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둘은 죽은 후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봐야되지요.

이 소설은 가정부로 오래 일하면서 집안 내막을 잘 아는 Nelly Dean이 Thrushcross Grange에 잠시 세들어 사는 Lockwood에게 지난 일을 회고하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히스클리프가 소유한 저택을 잠시 빌려 살게 된 Lockwood가 히스클리프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Wuthering Heights에 머물게 됩니다. 한 밤을 지내면서 Lockwood는 침실에 있는 선반에 세 사람의 이름이 반복되어 새겨져있는 것도 보고, 25년 전에 캐서린이라

는 여자가 쓴 일기도 읽게 되고, 또 이상한 악몽도 꾸게 됩니다. 과거에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진 Lockwood는 Nelly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됩니다.

Lockwood가 꿈을 꾸는 중에 ‘Seventy Times Seven, and the First of the Seventy-First’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8:21-22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찌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흔번씩 일곱번이면 490번이 되네요. Lockwood의 꿈에 나오는 설교자는 490개의 죄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듣는 Lockwood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491번째 죄를 말하려고 할 때 Lockwood 참지 못하고 490개의 죄를 나열하는 자체가 490개의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설교자를 내쫓아 버리자고 말합니다. 저도 어릴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다른 사람을 490번까지만 용서하면 되는 거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이 외에도 성경을 인용한 표현이 이 작품에 많이 등장합니다. 히스클리프의 무시무시한 개에게 혼이 난 Lockwood는 “The herd of possessed swine could have had no worse spirits in them than those animals of yours” 라고 하며 마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 내셔서 돼지떼에 들여보내시자 돼지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하는 장면을 인용합니다. 히스클리프를 너무 미워하여 저주스런 말을 하는 부인에게 Nelly가 “If God afflict your enemies, surely that ought to suffice you” 라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시편 55편을 인용합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 중에 <제인 에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전에 말씀드렸는데 <폭풍의 언덕>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지, 또 누구신지 궁금하군요.

청년 2부 수련회를 마치고

임 연 교우

청년 2부는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Alton Bay Christian Center (Altonnay, NH) 에서 4월 7일에서 9일까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올해에는 로드아일랜드 제일한인교회의 소기범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어느 수련회보다도 가슴에 남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기범 목사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주제 아래 주로 요나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많이 아는 내용이기에는 어쩌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요나서이지만 그 속에 담긴 영성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결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 후에 오는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사이에 이관화 형제와 박태원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놀이 시간들은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서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 지치기 쉬운 시간이었지만 그런 웃

음들은 하나의 활력소가 되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추억으로 남겠지요.

이번 수양회의 또 다른 특색이 있다면, 소기범 목사님의 지도하에서 우리는 “영적 자서전”을 쓰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영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속에 길지 않은 글을 썼지만, 과연 살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 삶과 그 속에서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상념 속에서 값진 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행동하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이기에 열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양회 동안에 쓴, 아니 우리가 살면서 써가는 영적 자서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수양회를 다녀오면 그것이 끝이 아닌 시작일 것이기 때문에...

문권사님을 방문하고 나서...

김 연지 권사

5월 14일 어머니 날에 김계숙 권사회 회장님의 제의로 이상구 권사님, 나시옥 권사님, 박연교 권사님등이 몇 명의 장로님들의 차로 오래간만에 문숙찬 권사님을 방문하였다.

계속된 장마비에도 불구하고, 또 어머니 날이기에 각 가정에 자녀들의 방문 잔치도 있겠지만, 꽤히 동행해 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한올타리’의 지면을 통하여 감사를 드린다.

91세의 노문하신 문 권사님은 오랜 병상에도 불구하고 끈고, 명랑하게 한 사람 한사람을 기억하시고 “김문소 장로, 나 잊지 않아. 김갑성 장로도, 박병덕 집사도, 강성유 장로도, 나 다 기억해. 많이 탕큐”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진작, 자주 올 수 없었던가... 하기가 이렇게 한 번 오는데도 차편이 없는 권사회의 움직임에 장로님들한테 까지 큰 수고를 끼쳐야 하니...’

그러나 위문 심방을 한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오

히려 보답을 느낄뿐더러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문권사님의 명랑하고 깨끗한 예쁜 얼굴은 말도 통하지 않은 미국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에, 믿음으로 외로워 하시지 않고, 우울한 마음도 가지지 않으심에 감탄하고 노환 중에도 본이 되게 지내심을 감사하며 배울 수 있었다. 다 같이 기도할 적에도 큰 소리로 연신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던지... 효녀 최승주 집사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때라도 남편 김명철 장로님을 가르켜 “우리 어머니는 사위도 참 잘 두셨다”고 자랑을 해서 “그것 물론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인데”라며 웃었다. 다들 돌아 오려는데, 김명철 장로님과 최승주 집사님께서 미리 준비한 예쁜 상자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셔서 고맙게 받아 가지고 비오는 보스턴 거리를 달려 오면서 권사의 할 일이 병중에 있는 분들을 심방하고 기도해 드리는 것이 사명의 한 부분이건만, 다하지 못하는 처

지를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권사 중 최고령자인 신좌경 권사님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서도 주일이면 꼭 교회에 오심에 감사했고, 권사회 전원이

몸은 불편해도 생각과 생활이 아름답고 건강한 것을 감사하였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1부 찬양대 조유미 집사

“**오늘** 해 성금요일 찬양은 1부에서 준비해줄 래?”

“네?...선생님(변 장로님)... 저기.....네”

1부 찬양대로서 3번째 드리는 성금요일 찬양 준비는 그 어느해 보다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다. 아이 둘 데리고 하루종일 씨름하면 밤이 되고, 여유있게 앉아 생각은 커녕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든걸... 하겠다고 하고는 바로 고민에 빠져서 하루 하루가 가는 것이 두려웠다. 속도 모르는 찬양대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연습 시작하죠” 하며 성화다.

곡을 정해야 하는데 그놈의 욕심이 머리를 든다. 이번만은 흔히 하는 ‘칸타타’가 아닌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뮤지컬...??? 시간이 없는데, 사람도 적고, 또 악보는 어디서 구한다지?”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문다. 고민하는 모습을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박진욱 집사가 고맙게도 여기저기서 부활절 칸타타를 모아 가져다 준다. 집에서 악보를 뒤적거리지만 눈에 들어 오지 않는다. 어찌지.....

“어! 누나 이곡 좀 보세요. 곡이 무지 좋은데 뮤지컬이에요.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뮤지컬??” 이관화 교수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원래의 아이디어라서 더 그랬나?

The Victor,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 곡도 좋았고 꼭 뮤지컬로 안하더라도, 근데 또 고민이 생겼다. 부활주일이 아닌 성금요일 찬양인걸... 흠... 산넘어 산이군. 부활주일 찬양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날은 끝나는데... 아...머리아.....

어찌되었든 이 곡으로 연습을 시작했다. 성금요일 두달 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연습을 했다. 감사하게도 김정림 집사님, 이선영 장로님께서 매번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최승주 집사님, 오승연 집사님의 별식과 조순래 집사님의 국밥이 준비되어 늘 배부르게 연습할 수 있었다.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도 생겼다. 뮤지컬이 아니라도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악기를 사용해 볼까?’ 박진욱 집사에게 부탁을 했다. 여기는 오르간을 넣어서 웅장한 효과를, 간주곡은 플룻과 첼로로 하면 아름답겠는데, 트럼펫으로 좀 더 효과를기분이 좋았다. 무언가 될 것 같다. 옆에서 늘 연습을 구경하던 딸 아이가 “호산나 호산나” 따라 부른다. 귀여운 녀석, 미소를 지었다.

한국에 job interview갔던 이관화교수가 돌아왔다. 한국에 2주 후에 가는데 찬양을 못하고 갈 지도 모른다고...

말도 안돼...이곡은 네가 제일 잘 아는데, 나레이션도 ...안돼...

결국 함께 찬양하기로 했다. 찬양 바로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떠나는 이관화교수에게 무지 미안했다. 한국 도착 다음날로 일 시작이라는데...그래도 ...히유! 한시름 졌다.

그러나.....그것이 시작인 것을. 악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못한다는 연락이 왔다. 며칠 안 남았는데...오르간도 없고 플룻도 첼로도 없다. 이렇게 됐는데 트럼펫만 있으면 뭐 해, 오지 말라고 했다.

복도 오지 말라고 피아노로만 해야지. 앞이 캄캄하다는 말 이때를 위함인가. 속도 상하고 실망도 되고.....

찬양 전날 복하는 친구가 온단다. 오지 말라고 했다.

벌써 출발했다.
 복과 찬양.....어울릴까? 포기 상태다. 그냥 찬양
 만 잘 마치자.
 자포자기한 맘으로 기도를 했다.
 갑자기 모든 것이 clear해진다.
 고난받으신 주 앞에 부끄러웠다.
 찬양대원들 앞에서 고백 할 수밖에 없었다.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데, 우리의 죄로, 고난으로 죽으신 주님을 찬양 하
 는 것을...
 걸치장도 아름다움도 악기도 장식도 필요없는, 십자
 가의 죽음만이 있는 성금요일인걸.....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찢긴 십자가 아래서 멋있게

장식하고 치장하여 드리려 했던 나의 욕심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성금요일 찬양이 시작되었다. 호산나 노래했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으며, 못 박힌 주님을 바
 라보며,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룰 때까지 주 위해 살겠
 네 고백했다.

복과 찬양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으며 찬양 대원
 들의 목은 메었고 눈에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가
 득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내가 주를 찬양
 하나이다.

고통속에서 찬양 할수있는 이유

김하나 집사

저희 수양회는 4월 14일 부터 16일 부활주
 일 아침까지 Grotonwood Conference에
 서 있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시던 고헌
 중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삶의 한계를 극복하
 라” “주님께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 “고통속
 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의 제목으로 귀한 시간
 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의 삶을 나누어주시고 막 가정을 꾸려가
 기 시작하는 저희 모두에게 귀한 은혜로운 도전을
 심어주시는 말씀을 들려 주셨고 또 저희 안에 교제
 가운데 서로에게 더욱 격려와 힘이 되어가기를 기
 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안에 이루실 선한 계획들



에 대해 나누고 웃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었던 귀
 한 시간이었습니다.

쉐마의 밤

‘쉐마의 밤’ 첫번째 밤이 5월 27일(토)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교우님들 100명이
 함께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
 을 가졌습니다.

쉐마 찬양단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쉐마의 밤은
 어린이들과 함께 나온 부모님과 할머니/할아버지,
 그리고 청년들이 찬양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족 이야기로는 최복희 사모께서 따님이신 이
 선영집사, 손자이신 이준혁군과 함께 나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영길 목사님께서 잠언 22장 6절을 바탕으로
 간단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고, 기도의 시간에는 가
 족을 위하여,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그리고 니카라
 과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를 드리는 뜻깊은 시
 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 청년 1부 주최로 네번째 열린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청년1부는 대부분 한국에서 또는 미국의 각 지역에서 이곳 보스톤의 대학으로 유학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면서

로를 격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보스톤 지역에 유학 온 다른 믿지 않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열린 축제를 지난 4년째 열고 있습니다. 비록 각자 공부하는 것들로 시간에 쫓기고 힘들지만, 함께 모여 연습하고 준비한 찬양, 연극, 춤, 피아노 연주 그리고 영상물로 우리의 모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이영길 목사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고, 찬양과 예배의 시간후에는 친교실에 모여서 청년1부의 지체들이 정성스레 손수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스톤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의 학생들 약 150여명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열린 축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청년1부의 많은 형제, 자매들의 끼와 재능으로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 온, 많은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니카라과 전 구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 드립니다. 벌써 4월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일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이라고 합니다. 100도 가까이 되는 가장 더운 때이지만 이정도면 살만 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크게 불평하지 않고 맡겨진 학업에 열심을 다하고 있음도 감사의 큰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기후 차이가 크고 환경이 많이 변했기에 아이들과 집사람은 잔병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이 정도의고생과 불편도 없으면 어찌 선교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열악한 선교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선교 보고의 형식은 아니지만 선교하며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길지 않은 글이니 읽어주시고 또한 아래의 기도도 부탁 드립니다.

- 다음은 부탁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 1.가장 더운 기간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건강을 잃지 않고 잘 지내도록
- 2.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 3.메르카도 오리엔탈 숲키친 사역을 위한 건물 구입

- 이 잘 진행 되도록
 - 4.숲키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하여
 - 5.학교 사역에 비전을 갖고 더욱 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 6.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서 협력하는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 후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니카라과 전 구 선교사 전 구 올림

Mailing Address in U.S.A.
Rev. Matthew Jun or Hope Nicaragua
P.O. Box 2812
Fairfax, Va 22031-2812

Mailing Address in Nicaragua
Rev. Matthew Jun
Apdo Postal 2758
Managua, Nicaragua

Telephone Number
011-505-657-7700 (휴대용)
한국 구좌 : 구좌번호; 농협 489-01-313122
구좌명; 좋은이웃교회

당회 소식

• 신학생 인턴쉽: 우리 교회는 보스톤 근교의 신학교에서 공부 중인 신학생들에게 Intern Ship의 기회를 열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학교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교회 인턴쉽을 신청하는 신학생들(2명)에게 이민 교회의 다양한 교회 사역에 대한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5월부터 첫 번째 인턴쉽을 김만규 전도사님(Gordon Cornell Theological Seminary)께서 하고 계십니다.

• 목회자 수련 과정(Inquirer) : 전광성 전도사(보

스톤 한인 연합교회에서 Children/Youth 전도사로 봉직중)를 목회자 수련생(Inquirer)으로 받아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광성 전도사님은 Union Theological Seminary (구약학 박사과정)에 금년 9월 입학 예정에 있습니다.

• 교육 2부 위원회 보고: 이주용/이미정, 이성숙, 김상태/이선진, 이재형/김은희 교우께서 활동 교인이 되셨습니다.

6월 행사 안내

• 성령강림주일 (6/4) : 6월 첫째주는 주님의 성령 강림을 기리며 성령 강림주일(Day of Pentecost)로 지킵니다.

• 제직회(6/17): 올해 첫번째 제직회가 예전보다 한 주일 앞당겨진 6월 17일(토)에 있습니다. 6시 30분부터 친교실에서 저녁 식사가 있는 후 소예배실에서 제직 회의를 가집니다.

• 해외선교 세미나(북한 선교) (6/18): 해외선교 세미나의 일환으로 북한 선교에 관해 세미나를 가집니다. 강사는 전 북한 예술단원으로 활동하시다가 망명후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마 영애, 최 은철 선교사입니다.

• 은혜마을 수련회(6/23-24): 은혜마을 수련회가 Sharon 수양관에서 6월 23, 24 양일간에 걸쳐 있습니다.

• 집사회 주관 상록기도회 관광(6/24): 집사회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록기도회 회원들을 위한 일일 관광이 6월 24일(토)에 있습니다.

• 성례식(6/25): 6월 25일(주일) 성만찬이 있으며, 2부 예배시에서는 성인세례와 유아세례가 있었습니다.

• VBS (Vacation Bible School) 여름 성경 학교(6/26-29)
해바라기 유년 초등 주일 학교에서는 6월 26일 (월) ~ 29일 (목) 오후 5시~8시까지 “Discovering God’s Love” 라는 제목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엽니다. 자격은 2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며 저녁 식사가 학부형회 주최로 제공됩니다.

“English Night”

교인 위원회

지난 5월 20일 교인위원회 주관으로 ‘English Night’ 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님들중 문화권이 다른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2세 가정들이 모여 함께 만찬

을 나누고 흥겨운 게임으로 친교를 가졌습니다. 김성현/이은주 집사님께서 초대하여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해 주셨는데, 함께 한 시간들을 통해 문화적으로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



시 통역팀의 백승환/백주연, 김성현/이은주, 한혜성 집사님, 그리고 담임목사님 가정과 교인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의미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English Night에 참석하셨던 Kris and Byron Pavano의 글을 실습니다.

Our entire family enjoyed “English Night.” We always enjoy the fellowship of the church members. Our hosts prepared a fantastic meal and we genuinely had fun playing games and getting to know our church friends better. Even our 18 month old daughter Isabella participated in the games (and showed her father how to play in the process).

Although the event was called “English night,” our whole family came away from the evening with a renewed desire to learn Korean, if only so we can also participate in the many “Korean nights” that often happen within our church.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attend.

Kris and Byron Pavano

는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영길 담임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언어가 다른 분들을 배려하여 동시 통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동시 통역을 통해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어와 인종은 다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권 형성을 위해 English Night이라는 그룹모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첫번째 로 가진 이 모임을 위해 윤미자집사님께서 코디네이션을 해주셨고, 하대준/임보라, 정민석/토모코, 파바노/장윤희, Jed Barron/오성희, 김주형/김혜성, Tommy Lee/이현주 교우 가정과 동

니카라과 선교 기금 마련 골프 대회

2006년도 Nicaragua Mission후원 Golf Tournament를 Chestnut Hill에 있는 Putterham Meadows golf course 에서 지난 5월 27일 토요일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이번 Golf Tournament에는 본 교회 (KCB)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누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총 50명 (남자: 40명, 여자: 10명)이 각각 Seniors, Group A, Group B, Group C, Ladies으로 나뉘어져서 경기를 가졌는데요, 특별히 경기에 참석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기도와 봉사, 상품기증, Hole Sponsors등으로 이번대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후원 기금은 전액 Nicaragua 은혜교회의 건축과 단기선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보스턴 한인교회 해외선교 위원회와 집사회에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약 \$3000의 기금이 이번 2006년도 Nicaragua Mission후원 Golf Tournament를 통

해서 모아졌습니다. 이행사를 위해서 수고, 협조, 기도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 교우 환영반 소식

목사님과 함께 하는 새교우반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가족들을 초대하여 첫째 주는 간단한 자기 소개로 서로를 알리는 시간을, 둘째 주는 “말씀과 함께”라는 교재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그리고 셋째 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3월의 새 교우반 수료자



변옥화, 이승훈 (앞줄 왼쪽): 우리 교회를 출석하신지는 3년 정도 되셨지만 최근에 등록하셔서 새교우반에 참석하셨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고 3살짜리 유진이 있고 중서 3구역 소속입니다.

토모꼬, 정민석 (앞줄 중간): 부인은 일본분이시고 정교우님은 엔지니어십니다.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하셨고 5살난 아들이 있으면 부부청년부 소속입니다. 한준현, 김정현 (앞줄 오른쪽): 하바드에 Post Doc으로 3년 정도 있으실 예정이고 4살난 지연이와 3달된 아들이 있습니다. 중앙 3구역 소속입니다.

김종선, 박정예 (뒷줄 중앙에서 왼쪽): Metrowest Emergency 의사시고 2년 정도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가 등록하셔서 새교우반에 참석하셨습니다. 6살된 딸 시은이가 있고 중앙 3구역 소속입니다.

박준오, 노현진 (뒷줄 중앙에서 오른쪽): 두 분 모두 의사시고 2년 예정으로 연구차 보스턴에 오셨습니다. 7살된 딸 선민이가 있고 중앙 4구역 소속입니다.

작년 11월에 새교우반을 수료하신 김병규, 정은숙 집사님 가정에서 초대해주셔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알림

• 한국문화축제 2005 DVD 제작: 2005 한국문화축제(The Korean Cultural Festival) 행사 DVD가 제작되어 6월중 배부됩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과 관심있는 타교회에 배부될 이번 한국 문화 축제 DVD는 새교우이신 이상현집사님의 노고로 다양한 한국 문화 축제의 장면들이 멋진 디자인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 교인 전화부와 주소록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되신분은 게시판에 기록 바랍니다.

• 사용하지않는 여러분의 TV와 컴퓨터가 있으시면 기증을 바랍니다. 주일 학교 어린이들과 교인 위원회의 일을 위해 쓰여지겠습니다.

• 지난 4월 10일 예배에 헌금송을 해주신 Kelly

Shepherd의 CD, “The Beauty of Simplicity”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웹사이트 www.nomadstories.com or www.cdbaby.com/cd/kellyshepherd에 가시면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이수연 양의 바이올린 CD 출시: 이수연 양 (이경환/민정숙 집사 장녀)의 바이올린 CD (Heifetz Transcriptions)이 출시되었습니다. Amazon.com이나 Barnes & Nobles, Virgin Mega Store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